

# 수비 공백 vs 공격 약재... 급한 쪽은 멕시코

축구 내일 새벽 4시 멕시코와 격돌...비거도 8강

중앙수비수 최규백 부상 결장...장현수 복귀

공격수 2명 빠진 멕시코 구티에레스 경계대상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남자축구 8강의 길목에서 한국과 멕시코가 맞붙는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1일(한국시간) 브라질리아 마네 가힌사 주경기장에서 멕시코와 C조 3차전을 치른다.

한국과 멕시코는 모두 1승1무이지만 득실차에서 4점 앞선 한국이 C조 선두에 올라 있다. 한국은 비기기만 해도 8강행을 확정할 수 있지만, '디펜딩 챔피언' 멕시코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멕시코는 이번 대회 우승 후보 중 하나다. 그러나 두 팀 모두 3차전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변수로 고심하고 있다.

한국은 중앙 수비수 최규백(전북)이 독일전에서 이마를 다쳤다. 엔트리를 교체할 정도의 심한 부상은 아니고, 선수 본인도 뛰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멕시코전 출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신태용 감독은 9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선수보호 차원에서

최규백을 멕시코전에 출전시키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격에 비해 수비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대표팀으로선 적지 않은 타격이다.

앞선 두 경기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를 맡았던 장현수(광저우 푸리)가 중앙 수비수 자리에 들어올 수 있지만, 대신 중원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한국은 독일과의 2차전에서 3골을 내주면서 8강행 확정을 날려 보냈다. 수비의 아쉬움이 컸다. 경기 후 신태용 감독도 "멕시코전에는 수비를 보강하겠다"고 말할 정도였다. 신태용 감독이 최규백의 부상이라는 악재를 극복하고 수비를 어느 정도 보강할 수 있느냐가 멕시코전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는 더 큰 약재에 시달리고 있다. 멕시코 공격의 핵심인 오리베 페랄타(클럽 아메리카)와 로돌포 피사로(파추야)가 피지와와의 2차전에서 크게 다쳐 아예 팀을 떠나게 됐다.

와일드카드로 선발된 32세의 노장 페랄

타는 젊은 선수들로 구성된 멕시코의 정신적 지주로 꼽힌다. 페랄타는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도 와일드카드로 출전해 후배들과 함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6 남미 축구선수권대회에서도 멕시코 대표팀 주전 공격수로 활약했다.

페랄타는 독일과의 1차전에서도 헤딩으로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물오른 기량을 과시했다. 피사로도 독일전에서 득점을 기록하는 등 멕시코 공격을 이끌었다.

다만 한국 입장에선 두 선수의 하차에도 불구하고 피지전에서 4골을 기록한 에릭 구티에레스(파추카)와 측면 공격수인 어빙 로사노(파추카)를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로사노는 멕시코 리그 소속이지만 프리미어리그의 명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유럽구단들의 관심을 받을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 선수다.

23세 이하(U-23)의 역대전적은 한국이 2승4무1패로 앞서 있다. 올림픽 역대전적 역시 2승2무로 한국의 우세다. 한국은 1948년 런던 올림픽에 출전해 멕시코를 5-3으로 꺾은 이후 2012년 런던 올림픽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올림픽에서 만났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도 한국이 조별리그에서 0-0으로 비겼지만, 멕시코는 결승에 진출해 브라질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연합뉴스



한국 신태용 감독(왼쪽)과 멕시코 라울 구티에레스 감독이 오는 11일(한국시간) 리우올림픽 축구 C조 한국과 멕시코의 조별리그 3차전을 앞두고 9일 브라질 브라질리아 마네 가힌사 경기장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2세트 먼저 따내 만리장성 거의 넘었는데...



8일 오후(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리우센트루 올림픽 탁구 경기장에서 열린 2016 리우올림픽 남자탁구 4라운드에서 한국의 정영식이 세계최강 중국의 마룽에게 마지막 세트에서 접전 끝에 패배한 뒤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 탁구 남자단식 정영식 세계1위 마룽에 역전패

아쉽다고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패배였다. 이번의 주인공이 될 뻔한 문턱에서 주저앉았다.

탁구 남자단식 정영식은 9일 경기가 끝나고 고개를 떨궜다. 수건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저절로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이철승 코치가 '괜찮다'며 등을 두드렸지만, 쉽게 그치지 않았다.

누구도 세계랭킹 1위 중국의 마룽을 이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0-4로 졌더라면 그렇게 안타깝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는 두 세트를 앞서서다 내리 네 세트를 내주고 말았다. 그것도 세트스코어 2-2인 상황에서 5세트 11-10으로 리드하다 내리 3점을 허용했다. 6세트는 더욱 아까웠다. 9-4까지 앞서며 7세트까지 몰고 갈 수 있었지만, 11-13으로 역전패했다.

세계 최강 마룽을 상대로 그 누구도 하지 못한 활약이었다. 지난 6월 첫 번째 맞대결에서는 0-4로 완패했다. 그리고 코리야오펜에서는 1-4로 진 것에 비하면 대등한 그 이상의 경기였다.

정영식은 금메달을 꿈꾸며 한 달 이상 비디오투를 보면서 마룽만을 분석했다. 마룽만 이기면 메달은 물론, 금메달을 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올림픽 단식에서 금메달을 딸던 유남규, 유승민을 생각했다. 이제 '사고'를 한 번 칠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 금메달을 따서 '스타'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

그리고 '사고'는 현실이 되는 듯했다. 그러나 처음 밟은 올림픽은 간단치 않았다. 세계랭킹 1위도 그냥 최강이 아니었다.

"또 이런 기회가 안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라며 눈물을 흘린 정영식은 "이번 세트만 따내면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소극적으로 플레이를 한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정영식은 "이번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다. 금메달을 따서 스타가 되고 싶었는데"라고 고개를 떨궜다.

정영식의 플레이에 마룽도 혼쭐이 났다. 마룽은 "어려운 경기를 했고, 까다로운 상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영식은 아직 잠재력이 크다"며 "앞으로 중국을 위협할 강력한 상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 112년만의 티샷

남자골프 11일 개막...안병훈 첫 조 출격

박인비·김세영·전인지·양희영 17일부터

112년 만에 올림픽 정식종목에 다시 채택된 골프가 11일(이하 한국시간) 시작된다.

골프는 1904년 세인트루이스 대회 이후 올림픽에서 열리지 않다가 2009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이번 대회 골프는 남녀 개인전에 금메달 2개가 걸려 있으며 남자부 경기가 11일, 여자부는 17일부터 시작된다. 남녀부 모두 60명씩 출전해 4라운드 스트로크 플레이로 순위를 정한다.

경기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올림픽 골프 코스에서 진행되며 파71에 코스 전장은 남자부 7128 야드, 여자부는 6245 야드다.

한국은 남자부에 안병훈(25·CJ), 왕정훈(21) 두 명이 출전하고 여자부는 박인비(28·KB금융그룹), 김세영(23·미래에셋), 전인지(22·하이투자증권), 양희영(27·PNS창호) 등 네 명이 올림픽 대표 선수로 선발됐다.

남녀 감독은 최경주(46·SK텔레콤), 박세리(39·하나금융그룹) 등 한국 골프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직접 맡았다.

특히 올림픽 탁구 메달리스트인 안재형, 자오즈민의 아들인 안병훈은 남자부 대회 첫날 1라운드에서 맨 첫 조에 편성됐다. 안병훈은 11일 오후 7시30분에 아디우손 다 시우바(브라질), 그레이엄 딜렛(캐나다)과 함께 1조에서 경기를 시작한다.

첫 티샷은 개최국인 브라질의 다 시우바가 하지만 안병훈 역시 112년 만에 올림픽 정식종목에 복귀한 골프 경기의 첫 조에 편성되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

남자부는 제이슨 데이(호주),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조던 스피스(미국) 등 세계 톱 플레이어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 등이 모두 나오지 않아 다소 김이 빠졌다. 그러나 출전 선수 가운데 세계 랭킹이 5위로 가장 높은 헨리크 스텐슨(스웨덴)과 6위 비바 왓슨, 8위 리키 파울러(이상 미국), 11위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 등이 출전해 만만치 않은 메달 경쟁이 예상된다.

안병훈도 올림픽 출전 선수 중에서는 세계 랭킹이 10번째로 높고, 왕정훈 역시 올해 유럽프로골프 투어에서 2승을 거둔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메달을 노려볼 만하다.

여자부에서는 한국의 에이스인 박인비가 최근 부진과 부상이 겹치면서 세계 랭킹이 5위까지 밀려났다. 반면 리디아 고(뉴질랜드), 에리아 쭈타누간(태국), 브룩 헨더슨(캐나다), 렉시 톰프슨(미국) 등 세계 랭킹 1~4위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아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된다.

그러나 박인비의 관록과 큰 경기에 강한 김세영의 독특한 배짱, 또 꾸준한 플레이가 돋보이는 전인지와 양희영 등이 여자골프 금메달을 향해 절묘한 조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

안병훈은 11일 오후 7시30분에 아디우손 다 시우바(브라질), 그레이엄 딜렛(캐나다)과 함께 1조에서 경기를 시작한다.

김지연은 8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파크 카리오카 아레나3에서 열린 여자 사브르 개인전 16강전에서 이탈리아의 로레타 굴로타한테 13-15로 패했다. 김지연은 런던올림픽 개인전 금메달 리스트다. 리우에서 올림픽 2연패에 도전했지만 16강전에서 발목이 잡혔다. 김지연의 세계랭킹은 7위, 굴로타는 26위다. 피 말리는 접전이었다. 경기 초반 0-2로 뒤진 김지연은 곧바로 2-2 동점을 만들었고, 4-2로 앞서나

## 펜싱 김지연 8강 좌절...2연패 무산

갔다. 김지연은 9-5로 점수 차를 벌였지만 잇따라 점수를 내주면서 11-11로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 11-14의 비라 끝에 물렸다. 그는 침착하게 2점을 얻어 13-14로 추격했지만 결국 13-15로 무릎을 꿇고 말았다.

앞서 김지연은 개인전 32강전에서 베트남의 응우옌 띠 레 등을 15-3으로 가볍게 제압했다. 이날 여자 사브르 개인전에는 김지연과 서지연, 황선아가 출전했지만 모두 메달권에 들지 못했다. 서지연은 32강전에서 러시아의 디아첸코 이카테리나에게 12-15로 무릎꿇었다. 황선아는 프랑스의 브루네 마농에게 11-15로 겨 16강 진출이 좌절됐다. /연합뉴스